장불재·입석대 위치·탐방로 확인 아직은 '먹통'

■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무등산서 이용해보니

표지판 앞에서도 앱 서비스 안돼
시행 2년이 돼도 정보 부실 '빈축'

#.문준호(29)씨는 지난 18일 무등산을 찾아 장불재에서 탐방로를 검색하기 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국립공원 산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지만 탐방로 정보는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하고 있지 않아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란 메시지만 확인한 게 전부였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전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중인 '국립공원 산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부실한 서비스로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등산객들의 안전한 탐방로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철저한 검증 없이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서비스 중인 '국립공원 산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은 무등산국립공원을 비롯, 전국 국립공원 기상 정보·등산로· 조난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까지 13만 건의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중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탐방로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데다, 제공 서비스도 '겉핥기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무등산의 경우 원효사 분소·장불재·입석대 코스 등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탐방로 코스 설정, 트래킹 등 GPS 수신을 통한 서비스는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17일 입석대에서 서석대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탐방로 표지판 앞에서는 "탐방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만 확인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스마트폰에 따라 수신 감도 등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국내 대표적 휴대전화 중 하나로 꼽히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 서비스'라는 말이 나온다. 등산 중 이동 거리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트래킹' 서비스도 취지와 달리, 국립공원 탐방로 코스에 따라 세분화해 제공하는 게 아닌, 평지의 칼로리 소모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 제공하는 '구색 맞추기' 콘텐츠라는 지적도 많다.

공단측은 그나마 서비스 제약을 받는 휴대전화 등도 공지하지 않아 탐방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에 해발 1000m 부근 장불재~서석대 구간에서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의 코스설정 기능을 실행했다. 표지판 앞인데도 "탐방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란 메시지만 뜬 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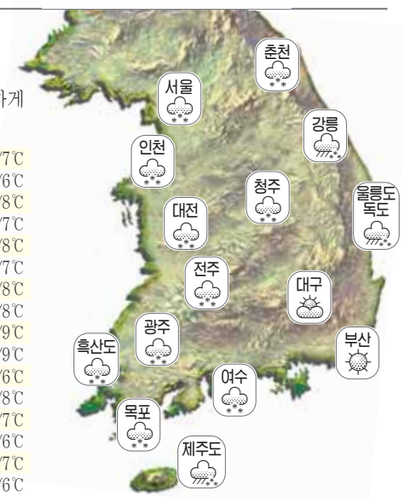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9분 해짐 17시 48분 | 달뜸 21시 39분 달짐 09시 31분

곳곳에 눈소식

눈 오는 가운데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광 주	눈	-1/7℃
목 포	눈	1/6℃
여 수	눈	1/8℃
나 주	구름많음	-2/7℃
완 도	구름많음	1/8℃
구 례	흐림	-3/7℃
강 진	구름많음	-1/8℃
해 남	구름많음	0/8℃
장 흥	구름많음	-2/9℃
순 천	구름많음	-1/9℃
영 광	눈	-1/6℃
진 도	구름많음	2/8℃
전 주	눈	0/7℃
군 산	눈	0/6℃
남 원	눈	-2/7℃
흑산도	눈	4/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서~북서	2.0~4.0m

	밀물	썰물
목포	04:18 16:45	09:36 22:03
여수	11:31 23:40	05:08 17: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날 씨						
최저/최고	-4/1	-5/3	-4/6	-1/9	5/10	2/9

광주·전남, 주초부터 눈·비오고 추워진다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은 눈이나 비가 자주 내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 후반부터 점차 풀릴 전망이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지역에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부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워지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21일 오전 광주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목포 영하 4도 등을 기록하겠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날 오전 새 1㎝ 내외의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오는 22일까지 평년보다 1~4도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온난한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는 23일부터는 광주·전남지역이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정렬기자 halo@

부모가 유산 물려 줄때 상속자 결정 짓는 변수 살펴보니

아들은 동거 여부 안 따지고 딸은 같이 살아야 재산 기대

우리나라 65세 이상 된 부모가 자녀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결정할 때, 아들의 경우 동거 여부가 부모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딸은 부모와 같이 사는가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사회학과 황선재 연구교수와 경희대 사회학과 김현식 교수는 이런 내용의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한국사회학회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행한 전국노인실태조사 가운데 '재산처리방식'에 대한 1만725명의 응답을 통계기법 순차로짓모형(단계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적용해 분석했다.

이 중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본인·배우자를 위해 쓰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성별과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아들과 같이 사는 경우와 아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딸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모두 '자녀에게 골고루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 '장남에게만 주겠다', '딸은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고 답하는 등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딸과 같이 사는 경우에만 아들 중심의 상속에서 벗어나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겠다'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인구학적 변수, 건강 등의 요인과 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촌보다 도시에 살수록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거나 자녀의 사정을 고려해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아닌 유동자산을 보유한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 중심의 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기존의 아들중심 상속체계 지지를 통해 본인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빚더미' 의사·한의사 개인회생 신청 급증

5년 새 치과의사 포함 449명

빚더미에 올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사와 한의사가 늘고 있다. 문을 닫은 병원은 3년 새 20~30% 급증했다. 'VIP(우량고객)'로 대접받던 의사 직군에 대한 은행 대출도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

1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담당 지역(인천·수원·춘천을 제외한 수도권·강원도)의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 5년간 1145건으로 집계됐다.

직업별 개인회생 신청자는 의사가 207건으로 2위, 한의사가 130명으로 4위, 치과의사가 112명으로 5위다. 1위와 3위는 회사 대표(225명)와 개인사업자(157명)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합치면 449명으로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의 39.2%에 이른다. /연합뉴스

'알바 진료' 공중보건의 7명 적발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 17일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수당을 받은 보건의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보건의가 3명, 구례·장흥, 경남 하동·사천 보건의가 각각 1명이었다. 광양 보건의들은 각각 3~4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지역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를 하고 평일 20만원, 토요일 25만원, 일요일 3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보건의들은 공중보건 업무외 진료를 하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응급실 근무도 할 수 없다. 시는 광양 보건의 3명은 경고 조치했으며 보건의가 일하도록 한 병원은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반려동물 키우는데 월평균 13만원 든다

반려 동물을 기르는 데 월평균 13만5632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 기준 반려 동물을 키우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은 사료와 관련용품 구입비 등 사육비로 월평균 13만5632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사료·간식비 5만7493원, 장난감과 가방 등 용품 구입비 3만5528원, 동물병원 등 기타 4만2611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동물병원 진료비로 연평균 16만6813원을 지출하고, 강아지(평균 16만6813원)가 고양이(14만393원)보다 진료비가 많았다. /연합뉴스